

늘 바쁜 생활에 쫓기다 보면 우리들은 이미 한 일까지 세심하게 살펴볼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데 미미한 일이 미미한 일로 끝날 경우는 관계없으나 그것이 점차 발전되고 확대되어 자신에게는 물론 집단과 사회, 나아가 국가에까지 커다란 해독을 끼치는 예를 종종 본다.

『거대한 제방이 조그만 개미굴로 인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많은 교훈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영 수습 못하고 과멸을 부르게 된다.

「사마천」이 지은 중국 역사서 「史記」에 불세출의 名將으로 그당시 천하를 주름잡던 無敵의 霸王 「항우」 이야기가 보인다.

「항우」의 A급 謀士 「범증」은, 당시 미천한 신분으로 저자에서 술주정이나 부리며 지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업신여김을 받고 있던 「한신」의 智略있음을 한눈에 간파한다.

그는 「항우」에게 『한신을 나라의 도원수로 쓰십시오. 만약 꼭 쓰지 않으시려거든 그를 죽여



金 因 洙

〈佛敎新聞편집부장〉

서리를 밟으며...

각 개개인이 오랜 세월동안 쌓은 ‘공든 탑’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 허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예를 볼 수 있다.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도 장기간 유지해온 원만한 대인관계가 미미한 사건 하나로 금이가버리는 경우를 왕왕 보게된다.

가정과 나라를 꾸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그만 사건의 발단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손실 또는 재앙을 부르는 일은 각종 역사서에 솔하게 등장하고 있다.

어떤 일이던 미미할 적에 살피지 못하면 그것이 마침내 크게 확대돼 수습하는데 애먹거나 영

앞으로 적이 될 경우의 후환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간곡히 청했다.

이에 「항우」는 절절대며 『저자거리에서 몇명의 시정배를 이기지 못해 그들의 사타구니 밑으로 기어다닌 자인데 그 배속에 무슨 經綸이 있을 것인가!』라고 한마디로 「범증」의 청을 묵살해버렸다.

「항우」는 뒷날 楚와 漢의 마지막 결전장에서 한신의 병법에 휘말려 『하늘이 나를 망친다』는 마지막 탄식의 말을 남기고 자결했다.

李朝 宣祖 때 일본 정국을 살피고 돌아온 통신사 「황윤길」의 보고를 묵살해버린 사건으

로 당시 나라 전체가 일대 시련을 겪게 됐다.

그 속사정이야 어쨌든, 두가지로 보고가 엇갈렸을 때 정확한 보고가 도리어 배척당한 풍토에 벌써 무수한 백성들이 비참하게 죽은 7년전쟁의 비극은 배태되어 있었다.

「한신」의 미천함에 주목하지 않았던 「항우」도, 「황윤길」의 충정어린 보고를 외면했던 선조와 조정 대신들도 자신들의 극히 미미한 부주의가 얼마나 큰 재앙을 부를 것인지 아무도 상상 못했을 것이다.

그러한 역사적 사례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그와 비슷한 일들에 접할 기회가 많고 또 실제로 그런 愚를 범하기 일쑤이다.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극히 작은 개인적인 일로부터 집단과 사회·국가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微’를 살피지 않으면 반드시 큰 사건을 부른다.

고금동서를 통해 각종 역사서나 고전들은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그점을 누누히 강조하지만 사람들은 대개 지나친 뒤 후회하는 어리석은 습관들을 못버리고 있다.

‘微’라는 개념은 불교에서 말하는 ‘因’의 개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함축적이고 포괄적인데 비해 ‘미’는 그 일부의 뜻을 차지하는 것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의 未發展·未成熟 단계를 뜻한다 하겠다.

따라서 ‘미’가 ‘盛大’하게 변화한다는 것은 곧 「因果의 법칙」이라 할 것이다.

이를 실득력 있게 문자화한 멋진 글이 있다. 주역 곤괘(坤卦)의 첫단계인 초효(初爻)를 설명하는 글이 그것이다. 그 글 원문을 글자대로 풀면,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이 이른다(履霜堅冰至)』로 풀이된다.

이를 조금 부연해서 의역하면 『서리내리는 것

을 보고 머지않아 강추위가 이를 것을 짐작(대비)한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동양의 여느 학설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자연의 현상속에서 법칙성을 찾아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동양의 이러한 학설 중에서 최고의 精華라 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역인데 탁월한 논리성과 깊은 함축성, 조리정연한 체계를 지니고 있다.

「서리를 밟으면…」이라는 효사를 해석한 십익(十翼)편의 설명에 이르러서야 우리들은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뚜렷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일을 해온(積善) 집에는 반드시 많은 경사(餘慶)가 따르고 좋지못한 일을 해온(積不善) 집에는 반드시 많은 재앙(餘殃)이 따른다.』고 서언을 꺼내곤 곧 이어 인간만사에 결부시켜 그 법칙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신하가 그 임금을 죽이고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하루 아침 하루 저녁의 까닭이 아니다(非一朝一夕之故). 그 유래해온 것은 다시말해 그렇게 되기까지엔 오랜 세월 점진적 발전단계를 거처온 것이다(其所由來者漸矣).』고 말하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그 까닭은 판단해야 할 때(미미할 적에)일찌기 세밀히 살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由辨之不早辨).』

이렇게 미미할 때 살피보지 못함으로써 초래하는 무서운 결과를 인간사에 적용시켜 두가지로 요약한 것이다.

즉, 십익이 저술된 당시 지금으로부터 2천5백여년전의 사회에서 인간사 최고의 비극은 신하가 그 임금을 사해하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다.

미미할 적에 살피지 못한 극단적 결과를 예시한 것인데, 우리들은 매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야겠다.